

- P2P *Commons Transition and P2P: a Primer*  
16 .
-

# 가치 창출의 새로운 생태계

커먼즈 기반의 피어생산(peer production)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. 지식, 코드, 디자인의 공유된 커먼즈 주위에 세 개의 기관이 있다. 생산 공동체,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, 그리고 지원단체이다. 이 생태계는 풍요로운 환경에 가루받이를 하는 식물로 그려질 수 있다.

## 디지털 커먼즈

식물의 꽃과 줄기는 커먼즈로 간주될 수 있으며 비경합적, 심지어는 환경합적 자원을 나타낸다. (사람들이 자원을 끌어다 쓰면 쓸수록 자원은 더욱 강화된다.) 이 커먼즈는 특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확대되고 변경되고 그 목적이 재설정될 수 있다.

## 커먼즈 지향 기업들

지식의 커먼즈로부터 가루받이를 하는 벌들의 공동체는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(Commons-oriented Entrepreneurial Coalitions)을 형성할 수 있다. 이들은 공통의 자원의 주위에서 시장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커먼즈를 산출하는 공동체의 생계를 확보하는 한편 추출적이 아닌 생성적(generative) 실천들을 통해 모양을 풍요롭게 만든다.

## 생산 공동체

생산 공동체는 생태계를 먹여살리는 풍요로운 토양이다. 기여자들이 바로 영양소들로서 프로젝트를 그리고 연계 시스템들을 살지게 한다. 자원자들 급여를 받은 사람이든 기여자들 모두가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을 생산한다.

## 지원단체

지원단체(for-benefit associations)는 생태계를 담아 보호하는 든든한 단지이다. 그러나 커먼즈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지는 않는다. 이는 풍요 지향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단체로서 기여하는 공동체들과 기업가연합으로 하여금 커먼즈 기반의 피어 생산(common-based peer production)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, 특수한 라이선스를 통해 커먼즈를 보호하며 그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.

이 가치 창출의 생태계 전체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는 것을 돕는다. 이 경제는 커먼즈에 기반을 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커먼즈를 적극적으로 파수하고 보호한다.

\* 이 그림 설명은 P2P재단이 작성한 Commons Transition and P2P: a Primer 에서 16면의 그림 설명의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.